시·도 지사후보 연쇄인터뷰

광주시장【1】민주당 박광태

"문화산업·일자리 창출 아직 할 일 많다"

- 민선 3기의 성과를 이야기한다면.

▲지역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기아자동차 생산량이 지난 2002년 18만대에서 지난해 35만대로 확대되는 등 자동차 50만대 생산도시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삼성백색가전 라인 광주이전으로 2002년 3조원이었던 매출액이 지난해 5조원으로 급신장했다. 광산업도 2002년 170개사 9천억원 매출에서 지난해 269개사 1조 3천5백원으로 늘었다.

이와 함께 대외적 성과도 늘어 지난해 수출액이 71억 9천만불로 부산(67억불)·대구(33억불)·대전(21억불)을 크게 상회하면서 광주는 제조업 생산 및 수출성장률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처럼 산업의 불모지였던 광주가 생산도시로 탈바꿈, 국가 첨단산업의 새로운 중심지가 됐다. 소비도시의 오명을 벗고 당당한 수출도시로 자리잡았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다.

또한, 예향·미향·의향으로서 전통을 살려 아시아의 문화중심도시, 한국의 문화수도로 거듭나고 있으며 관광의 불모지 광주가 국토 서남권의 관광거점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 아쉬운 점도 있을 텐데.

▲최근 3년 동안 지역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시민들의 체감경기는 이에 미치지 못해 지역의 발전상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이 안타깝다. 또한, 복지대책 등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에 비해 시 재정이 열악하여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한 점은 아쉽다.

- 민선 3기 성과 뒤에는 불도저식 행정이라는 비판도 있는데.

"'지역 경제 살리기' 혼신 첨단과학도시 이끌터"

▲나는 고민에 고민, 검토에 검토를 걸쳐 확신이 들었을 때 주요 업무를 추진한다. 즉 추진 전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한다. 하지만 하기로 맘을 먹으면 강력히 일을 추진한다. 그 때 흔들리면 일이 제대로 되기 힘들다. 이같은 업무 스타일 때문에 나오는 비판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추진력 있게 일처리를 하지 않았으면 오늘의 성과는 없었으리라 생각한다.

- 광주시는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문광부와 입장 차이도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도 있다.

▲광주시는 문화수도 사업의 궁극적 목적을 광주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에 두고 있다. 때문에 문화산업육성을 통한 고용 창출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예향 광주의 전통과 특성에 걸맞은 문화콘텐츠 산업을 지원해 지역의 미래 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으며 CGI(Computer Generated Image/컴퓨터형성이미지)산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인력양성,시설 및 장비구축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영상복합문화관 건립과 문화산업콤플렉스 조성 등으로 영상문화콘텐츠를 제작·유통·홍보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문광부와 입장차이가 있다는 것은 광주시가 문화산업과 관광 육성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복합단지 조성을 건의하고 있지만 문광부에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하지 않아 나타난 일로 생각된다.

- 아시아 문화의 전당 설계를 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바람직한 해결책은.

▲당선작품 설계의 큰 틀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성을 부각시키고 기존의 권위적 시설물을 탈피, 도심 속 휴식 공간 조성을 주제로 한 작품이라고 하지만 건물자체만으로도 관광상품화를 기대하는 시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설계변경에 대한 기본입장은 당선작을 취소, 교체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는 것이다. 문화전당이 광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 당선자가 창의적 보완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시민의 바람을 문광부도 잘 알기 때문에 반영해 줄 것으로 믿는다.

- 광주의 청년실업률은 8.9%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그 해소책은.

▲우리 지역이 다른 대도시에 비해 인구 1만명당 대학생 비율이 월등히 높은 반면, 제조업 등 산업여건이 열악해서 나타난 현상이다. 다행히 민선 3기 이후 1만2천여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고용구조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특히 대기업 콜센터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 지난 3년간 22개사 4천47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을 지역경제의 최대 과제로 삼고 내년부터 2010년까지 13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지역산업 육성을 통해 9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다. 자동차·전자·광산업 등 3대 주력산업의 매출액을 2004년 7조9천억원에서 2010년 31조원으로 증대시킴으로써 약 8만개의 일자리, 첨단부품소재·디자인·신에너지·문화콘텐츠 등 4대 전략산업 육성으로 1만개의 일자리를 각각 만들도록 하겠다. 또 한국전력과 정부통합전산센터 등 공공기관 이전,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및 문화산업 육성, 대기업 콜센터 유치 등을 통해 3만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 고속철도 건설 및 무안공항 개항 등과 맞물려 광주공항 존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간공항과 군공항으로 나눠 입장을 밝힌다면.

▲광주공항은 최근 잦은 국제선 전세기 취항 등 국제 항공수요가 급등, 2004년부터 2년 연속 흑자경영을 이루고 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14개 공항 중 1위를 차지했다. 공항기능 이전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항이용객·항공사·공항운영자 등 시장수요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무안공항이 개항되고 접근교통망이 확충 개설되더라도 시민 교통편의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광주공항 민항기능은 계속 존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군공항도 광주시는 지난 1996년부터 군 소음특별법 등을 빠른 시일내에 제정되도록 국방부 등에 수차 건의했다. 군공항은 광주가 독자적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므로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 이전되도록 해야 한다.

- 나주혁신도시 건설에 대해 일부에서는 광주 몫을 전남에 줬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에 대한 입장과 나주 혁신도시 건설의 올바른 방향은.

▲광주 몫을 전남에 줬다는 주장은 공공기관 유치의 전후사정을 모르는 이야기이고 사리에도 맞지 않다.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하기 전 한전이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이 유력했다. 위기감을

지역내 총생산 1만8000弗 목표 광주·전남 상생발전 도모

느낀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혁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까지 정부에 제안하니까 하는 수 없이 광주·전남에 한전을 보낸 것이다. 그리고 한전 등 광주에 배정된 공공기관이 나주 금천지역에 이전되더라도 공동혁신도시 건설의 효과를 가장 크게 누릴 도시가 광주라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다. 현재도 혁신도시 예정지까지 가는데 20분이면 충분하다. 더욱이 2012년 광주-완도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광주공항에서 혁신도시까지 10분대에 도착 가능하다.

공동혁신도시는 주거·문화·교통 등에서 최고의 생활여건을 갖춰야 하며 특히, 이전기관 직원가족과 고급인력의 이주를 위해 우수한 교육여건 조성에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

-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지하철 적자, 제2순환도로 적자 등으로 재정적자가 심각하다. 해결책은.

▲광주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민편의를 위해 각종 SOC 사업에 많은 투자를 했다. 그러나 도시철도 1호선과 제2순환도로가 부분 개통돼 운영비 적자보전 등으로 시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공사완료 시점인 오는 2008년부터는 적자보전액이 크게 낮아져 재정여건이 다소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공익시설 등 운영비적자에 대한 시 재정보전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용자(수익자)부담의 원칙, 감축경영 등 적극적인 경영수지개선 노력과 이후 설립되는 시설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운영비 등 재정대책을 필수적으로 포함토록 하는 등 재정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 나가겠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사진=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걸어온 길

'불도저' 시장…강한 추진력 장점

박광태 후보는 1943년 완도의 외딴 섬인 노화도에서 태어나 그 곳에서 중학교(완도중)까지 마친 후 목포에서 문태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고심하던 중, 은사와 친구의 권유로 조선대학교 법정대를 택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를 지내면서 '돌쇠''불도저'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강한 추진력과 흔들리지 않는 신념으로 유명했으며 때문에 69년 야당인 신민당에 발을 들여놓은 이래 박정희 정권 때부터 20여 차례의 연행과 투옥을 겪었다. 박 후보는 지난 1992년 제14대 국회에 첫 입성, 광주 북구에서 내리 3선을 기록했다.

1997년 대선 때는 범야권 대통령후보 단일화 협상 간사를 맡았으며, 외환위기 직후 당 제2정조위원장 시절에는 한남투자신탁과 기아자동차 구제책을 앞장서 성사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지난 2002년 6·13 지방 선거에서 광주광역시장에 당선된 그는 전국 광역시 중 가장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4년전 4천억원이던 국비지원액을 지금은 3배인 1조2천억원 정도로 확대했다. 또 국회 산자위원장의 인맥을 충분히 활용, 삼성전자 백색가전라인 이전 등 투자유치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그는 오늘날까지 '인간적 신의(信義)'를 삶의 모토로 삼으면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격의없는 인간관계를 유지한다는 평을 받는다. 부인 정말례씨(57)와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큰 딸은 이탈리아에서 디자인을 공부 중이며 아들은 대학생이다.

공약

박광태 후보의 공약은 크게 경제분야와 문화분야 두 축으로 구성된다.

경제분야는 3대 주력산업, 4대 전략산업, 5대 신기술산업을 집중 육성해 경제살리기를 통해 첨단과학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는 구체적인 실천계획으로는 2010년까지 일자리 13만4천개를 만들고, 지역내총생산(GDRP) 1만8천불을 이루는 등 부자 광주의 기틀을 만드는 것으로 잡고 있다.

문화분야 공약의 핵심은 이름에 걸맞은 문화중심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다. 특히, 문화로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하자는 취지다. 즉 문화산업 육성이 공약의 요체다. 이를 위해 복합문화단지 조성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 반드시 실현시킨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이미 추진 중인 어등산 개발계획과 영산강 프로젝트를 성사시켜 관광산업과 연계, 광주·전남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후보는 또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교육분야에 획기적으로 투자를 늘리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광주시가 의무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교육 예산 3천억원 외에도 광주시교육청과 협력체제를 구축해 영어마을 설립·특수목적고 신설·광주과기원학부과정 신설 등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이밖에 1천만 그루 나무심기로 대표되는 환경도시 조성사업 등 민선 3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을 민선 4기에서도 보다 심도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박 후보 측은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공약은 향후 적절한 시기에 공개할 예정이다.